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최근 청문회를 통해서 난도질 당한 전직 대학총장이 있다. 어느 신문에서 하도 거짓과 허위가 많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겨 "양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재직 시에 하도 외부기관과 단체의 자문, 고문 등등을 많이 맡아서 '고문 총장' 등등의 별명이 있다.

그때부터 만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오죽하면 얼마, 아빠도 선거로 결정하자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러한 사회 풍조는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학의 교수사회가 가장 재빠르게 대응하는 집단으로 변화했다. 그때 나온 것이 교수협의체인 현재의 교수평의회였다. 이러한 모

대학 총장 선거제 폐지하자

임을 통해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총장 선거를 교수들이 직접하는 '총장 직선제'가 탄생되었다. 마치 그동안 총장 직선제가 없어서 학교발전이 안 된 것처럼..... 그동안 국립대학교는 정부에서, 사립대학교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하여튼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총장'이라는 감투가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총장 선거가 시행되었다. 총장이 교수들의 선거로 결정되다 보니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총장이 되겠다는 꿈과 생각을 가득 채워 왔으며 바로 이러한 총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교수들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인맥을 동원하고, 학맥을 동원하고, 출신지역을

동원하고, 전공분야, 대학별로 동원되고, 선거본부가 생겨서 투표작전이 시작되었다. 사회의 선거방식을 꼭 빼닮고, 더러는 배운 게 있으니까 선거방식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총장선거제도가 생기니까 너도나도 미래 지향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당선되겠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출마해 이름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상대방을 잡고 늘어지고 승리한 측과 패배한 측이 세상에서 생각할 모든 것거리를 과감히(?) 실행하여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고들어 들추어내기도 하였다. 또 당선된 측은 자기를 측근 소위 학교 보

학내선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에 어떤 종류의 교수가 출마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소위 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들은 능력이 없어서인지(?) 또는 혐오감을 느껴 출마하지 않게 되었고 흔히 교수들 중 사회성 있고, 명예욕 있고, 또 가장 정치성이 있으며 나아가 정계나 행정부의 진출을 원하는 다시 말해 '총장'직위를 이러한 곳에 자의든 타의든 연결시키기를 원하거나 연결이 가능한 교수들이 출마하게 되었다. 선거제도를 통한 총장은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 추억 속에 그려왔거나 그리고 있는 예전 총장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유수한 대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총장이 됐던 분들이 정계에, 행정계에 진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본인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는 개인을 위해서나 출신대학의 명예를 살수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또 한 명의 대학총장 출신이 정계에 진출하였다. 아직도 언론과 국민들은 선거제도에 의한 대학총장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대학총장이 운운" 되는 것을 보니...

'대학총장선거'라는 허울 좋은 명칭 하에 펼쳐지는 창피스럽고 한심한 총장선거 제도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가천의과학대학교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허정



현재 법제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유행을 막기 위해 WHO 및 각국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대처를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많은 질병과 싸워오며 고통을 겪어왔다. 14세기 유럽에 페스트(흑사병)가 대유행을 해 유럽인구의 1/3 이상이 사망했으며, 한 마을 전체 또는 수녀원 전체가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등 인류 역사를 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20년대 신문에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현대 의학이 발전된 뒤로 원인규명이 됐는데 그 원인은 인플루엔자(조류독감)로 밝혀졌다. 그 후 1956년 홍콩 독감이 유행해 또 한번 많은 인류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다행히도 현대 의학의 대유행하는 질병들의 원인을 밝혀내어 예방방법과 치료

신종플루, 공포가 더 문제

정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기록은 별로 없지만 우리 동양권도 페스트로 인한 사망환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는 예방 및 치료의해이 발달하지 못해 어떻게 감염을 차단하고 치료할 줄 몰라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의 유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콜레라(호열자), 장티푸스, 이질, 홍역, 말라리아, 천연두 등 많은 전염병(일명 괴질)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왕실과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기도 했다. 왕실에서는 왕손들이 각종 괴질로 어릴 때 사망해 왕손의 혈통이 끊기기도 했으며, 백성들은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하며 죽어가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평균 수명이 35세를 넘기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근세에 접어들어 알다시피 1918년 괴질이 스페인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전염돼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보다 더 많은 인류가 희생당하기도 했으며,

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영양과 위생상태가 크게 발전, 면역력이 향상돼 질병전염의 대유행을 막고 사망률을 급속히 낮추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 창궐했던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말라리아 등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소수에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차단되며 치료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전염성 질환들은 옛날 같은 대유행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히 백신(예방)접종이 발전해 미리 전염을 차단하고 있으며 실험 발생되더라도 항생제들의 발달로 합병증으로 사망의 경우를 막고 있다. 이번 신종플루의 대처에 있어서 정부나 언론이 필요 이상의 국민에게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자세와 판단으로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야기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년병원장>

지구 온난화 따른 세심한 농업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계속 북상중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돼 왔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져 10여 년 뒤인 2020년경에는 평균기온이 과거 100년간 오른 1.5°C에 비해서는 1.2°C나 상승할 전망이다. 그 때문에 강원도 영월에서도 사과 재배가 가능해지고 한라봉은 나주, 녹차는 강원도 고성에서까지 생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망고 등 아열대 작목 재배가 늘어가고 있다. 현재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없다 보니 파종작기부터 햇갈리는데다가 재배지역의 확대도 홍수충격과 농산물값 폭락을 겪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작물을 새로 입식한 농가들은 생산한 아열대성 병충해 방제에 홍역을 치른다는 것이다. 전라남도 농업 당국은 지역별로 문제와 대책에 대해 분석해 농가에 행동지침을 보급해주고 종합적인 작물 재배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용한다 이런 기후변화 화가 오히려 농업발전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 걸로 본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기고

최응원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곳,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광주는 고마움과 더불어 빚진 마음이 든다. 그 시작은 1989년 대학시절 망월동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광주와 시민들 인상에 비롯된 듯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년 광통신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광주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 뒤 2004년 봄에는 (주)링크옵티스란 상호로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광통신부품 생산기업

연했다. 이로 인해 최근 필자는 누구든지 광산업을 하려면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권하고 있다. 어느덧 (주)링크옵티스는 이제 신생기업이란 딱지를 떼고 첨단 LED발광다이오드 제조업으로 성장해 준비하고 있다. 창업자라면 누구라도 경험하고 싶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무한경쟁의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지속 성장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

광기업 하기 좋은 도시 '광주'

을 창업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어려움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에서 거래처 확보, 제품 개발 및 자금 등 막막했던 그 시절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행히 광주는 광산업을 비롯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산다"는 시의 슬로건이 헛구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뒤 여러가지 지원책과 공무원들의 정성 덕분에 힘들었던 창업 초기를 넘겼던 기억이 새롭다. 해의 어느 지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광주에는 우수한 지원기관과 전문 인력들, 고가의 연구·생산 장비 등 광산업의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다. 특히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 개척은 넘기 어려운 '산'이었지만, 광주시는 여러 차례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로 인해 매출 증대를 가져온 것은 당

만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지원이 끊이지 않는 광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해외계객 활동 도중 상담 장소를 찾은 박광태 시장은 "1등 제품을 만들어 2등 가격을 받고 3등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다"고 필자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필자는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작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최고 제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싸게 팔며,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기업에 이익을 환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바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것까지 지역기업인들의 역할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 기업인들이 1등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높은 수익을 올리며, 지역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해본다. <㈜링크옵티스 대표이사>

농산물 활용 '패션 마케팅' 적극 추진해 봤으면

얼마 전 서울의 한 패션쇼장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웨딩드레스와 각종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가 선보였다. 이런건 우리 전라남북도 농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일이라고 본다. 즉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성분을 압축해 만든 천으로 웨딩드레스를 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은은한 진주빛에 비단처럼 매끈하고 보기에 좋았다. 보통 웨딩드레스는 폐기시 땅에 묻었을 때 분해가 안돼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이 옥수수 전분 소재는

땅에 묻었을 때 생분해가 되니까 사람에게도 좋고 자연에도 이로운 것이다. 그뿐 아니라 폐기물과 한지로 만든 의류도 나왔다고 한다. 우리 옷에 24시간 불어 평생을 함께 하는 의류에 이 같은 농산물을 활용한 패션이 더욱 늘어나면 더 또한 우리 농업계에서 눈을 돌려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본다. 마케팅 차원에서 전남농촌농촌 관계자들의 연구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 ▲양영천·보성군 미력면

시설

서민 우리는 토지주택공사 공기업 맞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 호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한다. 10년 이상 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매년 꼬박 올려받으면서 의무 보수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보수와 복리후생 등으로 '신(神)도 놀랄 직장'이라는 비난을 받은 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 도와주자는 못할망정 '집 장사'에 혈안이 된 걸 보면 과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딘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벽지나 장판 등을 보수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광주·전남 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6년마다 벽지·장판·전등기구 등을 보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 2천144가구와 전남 2천714가구 등 4천858가구의 지역 입주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2.3%씩 인상해 부과해 왔다. 권리는 어김없이 챙기면서 의무는 내팽개치는 악덕 사채업자의 행태가 공기업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직원 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심지어 해외주재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주택공 인건 국가로의 전지 휴가를 인정하고 왕복 항공운임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게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가능키나 한 일인가. 일반 기업에서는 언급생심 품도 못 풀 일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에게는 황포나 부리면서 흥청망청 빛 잔치나 하는 것은 공기업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정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술에 나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신종플루 확산 대비 백신접종 차질 없어야

한때 주춤했던 신종 인플루엔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학교에서 무더기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20여일간 200여명이 새로 감염됐으며 신종플루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전남에서도 19일 하루 동안 189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열흘 새 신종플루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오고, 고위험군을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녹십자가 개발한 백신 시판을 허가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접종이 가능케 됐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다.

그러나 백신시판이 허가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접종이어서 시행착오나 혼란이 우려된다.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공급 물량이 한정돼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빨리야 내년 1월 이후에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다. 신종플루 예방의 시작지대로 방치했던 지역 대학가에 대한 당국의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건소와 병·의원의 방역체계를 점검해 관리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나 국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지나친 우려 대신 생활 속에서 차분히 예방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無等鼓

우리가 경유로 부르는 디젤(Diesel)의 이미지는 저저분하다. 검은 매연에 요란한 소음, 공사판의 대형 트럭을 연상하게 한다. 가솔린이나 LPG와 비교해 봐도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친환경차를 말할 때는 늘 디젤이 앞에 나온다. 연료효율 때문이다. '플러그인 Tiguan'을 예로 들어보자. 에너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티구안 2.0 TSI 가솔린 자동변속기 차종의 연료 효율은 1당 9.8km다. 반면 같은 차종 디젤 자동차 변속기는 1당 12.2km를 달릴 수 있다. 같은 1을 주유했을 때 디젤이 2.4km 더 주행할 수 있고, 디젤만 가솔린차가 주행하려면 300cc를 더 태워야한다는 얘기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밖에 없다. 실제 디젤의 km당 탄소배출량은 219g으로 가솔린보다 20g이 적다. 이런 차이는 연료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가솔린은 흡입-압축-광창-배기로 이어지는 자동차 동력 창출 과정에서

공기를 섞어 압축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디젤에는 고압을 가할 수 있고, 여기서 큰 힘이 나온다. 과도한 매연이 걸림돌이었으나,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과장치를 만들어 해결했다. EU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인정, '클린 디젤'(Clean Diesel)로 이름 붙이게 된 사연이다. 클린 디젤은 요즘 플러그인, 아우디 같은 유럽 명차에 탑재돼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가 잇그제 클린 디젤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하기로 했다. 연산 100만대 규모로, 경제효과가 18조 2천억원에 달한다.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 가솔린차기 주행하려면 300cc를 더 태워야한다는 얘기가,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밖에 없다. 실제 디젤의 km당 탄소배출량은 219g으로 가솔린보다 20g이 적다. 이런 차이는 연료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가솔린은 흡입-압축-광창-배기로 이어지는 자동차 동력 창출 과정에서

클린디젤 자동차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